

숫자로 본 송해의 일생



송해가 34년간 진행한 KBS 1TV '전국노래자랑'의 한 장면.

국내 '현역 최고령 MC'답게 송해는 생전 술한 기록을 남겼다. 그의 걸어온 발자취가 곧 삶이자 역사이다.

34년 1988년 5월 KBS 1TV '전국노래자랑' 경복 성주 편부터 진행자로 나섰다. 건강상의 이유로 1991년 6개월간 휴식을 취한 것 빼고는 한 번도 녹화에 빠진 적이 없다. 3세부터 150세까지 1000만 명 넘는 참가자들과 함께 웃고, 울고, 춤쳤다. "경쟁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다정함이 있다"며 지역 주민들과 가깝게 소통하는 무대를 평생 아꼈다.

6·25 그는 6·25 전쟁 도중에 혼자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는 에세이 '송해 1927'을 통해 그는 "그것이 가족들과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고 회고했다. 당시 23세 송해의 머릿속에는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와 여동생의 모습이 흐릿하게 남아있다.

1986년 1988년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기 2년 전 교통사고로 큰 아들을 잃었다. 아들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을 때 그를 무대로 끌어올린 사람이 배우 안성기의 친형인 KBS 안인기 PD다. 당시 안 PD는 "야전부대 한번 감시다"라며 집에서 놀고 있던 송해를 불렀다.

3000명 친숙한 송해라는 이름은 연평도에서 구사일생으로 탑승한 유엔군 상륙선에서 자신이 직접 지었다('송해 1927'). "당시 함께 배를 탄 3000명의 전쟁 난민들이 안난미를 바닷물에 지어 먹으며 불안과 공포에 떨었고, 상륙함에 실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망망대해를 헤맸 때 제 이름을 다시 지었습니다. 바다 해 자를 따와서 송해(宋海)라고요. 이 이름이 주민등록상 본명이 되었죠."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거액의 유혹에 엇갈린 골프스타들의 행보

US오픈 우즈 불참...사우디행 미켈슨은 참가

美골프협회, LIV 합류 선수들 허용
"참가 기준 바꾸는 것 공정치 않아"
우즈는 "7월 디 오픈 대비 몸 준비"
불참 소식 알린 날 존슨 PGA 탈퇴

거액을 뿌리치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를 지키기로 한 타이거 우즈(미국)는 불참하고, '사우디 행'을 선택한 필 미켈슨(미국)은 나온다.

PGA 투어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를 앞세운 '사우디 골프리그'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출범으로 양분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다음주 열리는 122회 US오픈을 주관하는 미국골프협회(USGA)가 PGA 투어 탈퇴를 선언하고 사우디로 향하는 선수들의 출전을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PGA 투어 지킴이'를 자임하는 '골프 황제' 우즈는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US오픈 불참을 선언했다.

우즈는 8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해 "내 몸이 메이저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USGA에 US



US오픈에 참가하지 않기로 한 타이거 우즈와 출전 기회를 얻은 필 미켈슨, 더스틴 존슨(왼쪽부터). 거액을 뿌리치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를 지키기로 한 우즈는 컨디션 난조로 불참하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를 앞세운 '사우디 골프리그'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에 합류기로 한 미켈슨과 존슨의 US오픈 출전 허용이 논란을 낳고 있다.



오픈 불참을 미리 알렸다"고 전했다. "디 오픈에서 플레이할 때까지 준비되길 바란다"며 7월 열리는 또 다른 메이저대회 제150회 디 오픈 챔피언십에는 나가고 싶다는 바람을 곁들였다. 지난해 2월 교통사고 후 올 4월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통해 필드에 복귀한 우즈는 5월

열린 PGA 챔피언십에서는 다리 상태가 악화돼 최종라운드를 앞두고 기권했다. 올해 US오픈은 16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인근 브루클라인의 더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다. 우즈의 불참 소식이 알려진 날, 전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미국)은 사우디 골

프리그 참가를 위해 PGA 투어 탈퇴를 선언했다.

존슨은 영국 런던 근교 첸추리온 골프 클럽에서 9일 개막하는 LIV 인비테이셔널 1차 대회를 하루 앞두고 "지난 6개월 동안 신중하게 고민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LIV 인비테이셔널 합류를 정당화했다. 존슨에 앞서 스페인의 세르히오 가르시아와 재미교포 케빈 나, 남아공의 살 슈워첼과 브랜던 그레이스도 리브 골프 출전을 위해 PGA 투어에서 탈퇴했다. 사우디 골프리그 출범에 앞장섰던 미켈슨은 아직 PGA 투어 탈퇴를 하지 않았지만, 먼저 PGA 투어가 그를 제명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USGA는 "US오픈 참가 자격을 가진 선수들은 그대로 출전 기회를 갖는다. 이미 설정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발표하며 미켈슨과 존슨의 대회 출전을 허용해 PGA 투어 측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게 됐다. 미켈슨은 2021년 PGA 챔피언십, 존슨은 2016년 US오픈 우승자 자격으로 올해 US오픈에 나설 수 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67년간 매 공연 리허설...매일이 '연습의 나날'이었던 분"

후배들이 기억하는 송해



지난 달 23일 열린 기념식에서 '최고령 TV 음악경연 프로그램 진행자' 기네스 공식 인증서를 받고 밝게 웃고 있는 송해. 사진제공 | KBS

방송인 이상벽 "진정한 프로였다"
전유성 "후배들 지켜보며 항상 독려"

"무대마다 다른 색깔을 입혀야 한다."
"방송가의 큰 별" 송해는 67년간 활동하는 동안 어떤 무대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후배들도 자극시키는 특유의 성실함이 원동력이었다. 8일 오전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KBS 1TV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며 "죽기 전까지 마이크를 잡고 싶다"는 꿈을 이뤘다.

1927년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난 그는 일제강점기와 광복, 6·25전쟁 등 한반도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장했다. 해주예술학교에서 성악을 배우고, 1951년 1·4후퇴 때

홀로 남한으로 내려왔다. 28세 무렵인 1955년 창공악단에 들어가 연예계에 데뷔했다. 1960년대에는 구봉서, 배삼룡, 박시명 등과 함께 인기 코미디언으로 꼽히며 방송가를 누볐다. 박시명과 콤비로 활약한 동아방송 퀴즈프로그램 '스무고개', 17년간 진행한 TBS 라디오프로그램 '가로수를 누비며' 등으로 시청자를 만났다.

1988년부터 최근까지 자리를 지킨 '전국노래자랑'이 대표작이다. 지난해 11월 다큐멘터리 영화 '송해 1927'을 통해 "나의 삶의 터전이자 운명"이라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020년 3월 현장 녹화가 중단되기 전에는 매주 전국 곳곳을 돌며 시민의 희로애락을 함께 했고, 이후 스튜디오 촬영으로 스페셜 방송으로도 시청자들과 만나는 열정을 드러냈다.

그를 곁에서 지켜본 방송 선후배들은

"지각 한 번 하지 않은 진정한 프로"라고 기억한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송해와 함께 '나팔꽃 인생 60년 송해 빅쇼'를 진행한 방송인 이상벽은 "공연 직전 무대에서 30분간 묵상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돌이켰다. 그는 송해가 "머릿속으로 리허설을 하면서 모든 공연을 저마다 다르게 만들려고 노력했다"며 "전국노래자랑"도 34년간 그렇게 진행했다. 매일 '연습의 나날'이었던 분"이라고 존경심을 드러냈다.

무대를 내려와서는 까마득한 후배에게도 먼저 손 내미는 '큰 형님'이었다. "후배들과 술한 잔 기울일 때면 기어코 모든 술값을 내고야마는 후한 선배"이기도 했다. 전유성은 "후배들의 활약을 지켜보며 '잘하고 있다'고 독려했던 분"이라고 말했다. 이상벽은 "같은 황해도 출신인 저를 붙잡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곤 했다"고 추억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제조사 **주식회사 동진제약**

간편한 스틱 하나로 황칠의 건강을 음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 발급
30년생 황칠나무

보길황칠

어느때보다 면역력에 대한 관심으로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찾고 있습니다.
황칠나무의 옛 조상들의 전해 내려오는 효능과 각종 논문 등 수 많은 자료 고서 등은 인터넷 포털에서 수없이 검색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 포함 증정

4+4

소재의 독보적 가치
전통황칠나무32년생(生)

生

老

인간의 무병장수와
노화 극복(老)성인병 질환의
건강식품 시장(場)

場

增

바이러지속 증가
면역체계 교란(增)

국내산 황칠나무를 엄선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보길황칠에,
이런 점이 좋습니다.

- 모든 황칠나무는 최소 30년 이상된 것만 사용합니다.
- 황칠의 주산지인 전남 완도군보길도에서 재배한 황칠나무만 사용합니다.
- 홍삼 중 효과가 가장 탁월하다는 6년근만 엄선했습니다.
- 설탕, 착향료 등과 같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아 본연의 황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긍정적 효과가 탁월한 복분자, 토디팜재거리 등 천연 원료를 사용했습니다.
- 간편한 스틱(15ml) 하나로 충분한 양의 건강을 음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음주 시 섞어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NAVER

황칠 효능

Q

황칠나무의 국제학명은?

Dendropanax moribifera(덴트로파낙스 모비페라)이며 우리나라 서남해안 완도 보길도와 제주도 일대에서 자생하는 한국고유 수종이다.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상록활엽교목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한다. Dendro(그리스어원 '나무') + Panax (그리스어원 '만병통치약') + Morbi(라틴어원 '병') + fera(라틴어원 '줄기')로 병을 가져가는 만병통치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출품 GMP제2009-대전청-0008호
(좋은 Good 제조, Manufacturtrig 실행 practices)



ISO9001/ISO14001/ISO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서

제이에스바이오

농협 301-0196-8042-51

예금주:제이에스바이오 안전형

상담문의 |

1599-5333